



“광주예고 국립전환해주세요” ‘광주예술고등학교 국립전환 기원’ 행사가 지난 18일 운암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기념공연을 펼치고 있다. 국립인 광주예고(교장 박정진)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국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실무추진팀을 꾸릴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잔혹살인 징역 50년

대법 양형기준 마련 ... 조직적 사기범죄도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여럿이 공모해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살해유무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희생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

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일반사기는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징역 6월~2년6월,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1억원 미만도 징역 1년6월~3년이고 300억원 이상은 8년~13년으로 높아진다.

여기다 상습적이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뤄져 형이 가중되면 상한 없이 징역 11년 이상으로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6분
해질 18시 44분

달출몰 20시 46분
달정 07시 02분

춘분(春分)

남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림	6/12°C
목포	흐림	5/10°C
여수	흐리고안개	7/11°C
나주	흐림	5/12°C
완도	흐리고안개	6/11°C
구례	흐림	5/13°C
해남	흐리고안개	5/12°C
장흥	흐리고안개	5/12°C
순천	흐리고안개	6/12°C
영광	흐림	4/12°C
진주	흐리고안개	5/11°C
군산	흐림	4/13°C
전주	흐림	3/12°C
남원	흐림	3/13°C
옥산도	흐림	3/6°C

지역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1.5~2.5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0~3.0m	보통	주의	낮음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8	-1/10	-1/11	1/13	0/14	1/15

“46용사 뭇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천안함’ 1년 ... 광주·전남 출신 승조원·가족

“아들이 건강하게 바다를 지킬수 있었으면”



다지고 있다”며 “가끔 죽은 상사의 모습이 꿈에 나오는 등 아들은 그날의 기억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걱정했다.

박연수 대위

다. 또 그는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아들이 건강하긴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신안 출신 천안함 승조원 홍승현(29) 하사의 아버지 홍성운(55) 씨도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은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현재 근무하는 중에도 배를 타고 있지 않지만, 바다를 지키는 것이 아들의 꿈인 만큼 계속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진=해군본부 제공)

“천안함 사건을 과장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2가지집대 인사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출신 박연수(28·해군사관후보생 101기) 대위는 긴 한숨을 내뿜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장병들의 송고한 희생정신이 잊혀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박 대위 등 광주·전남 출신 생존 승조원 6명과 가족들은 아직도 1년 전 그날을 잊지 못했다.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도 숨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 대위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22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12001번)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았을 당시 천안함 작전 담당관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을 생 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먼저 간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22일 고향인 광주에서 신부 한아름씨와 뒤늦은 결혼식을 올린 뒤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여수 출신으로 현재 해군 교육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주현(21) 하사의 아버지 정광원(52)씨는 “당시 허리에 부상을 입은 아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에

광주 도심 차량 평균 시속 34.4km

교통시스템 개선 등 효과 3년 새 평균 3km 빨라져

지난해 광주지역 내 도로의 운행속도가 2007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3km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시스템의 개선과 도심 내부 및 외곽 도로 연계 강화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광주시가 실시한 ‘201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도심 운행차량의 평균 주행속도(지체 및 정체 포함 총 소요 시간)는 시속 34.36km로 전년도(33.06km)에 비해 1.30km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외곽은 53.93km로 전년도(52.41km)에 비해 1.52km 늘었

다. 도심 주행 속도가 2006년 시속 34.18km를 기록한 이래 2007년 31.70km, 2008년 32.69km 등으로 도로 서비스가 매년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시속 57.49km였던 도심 외곽 운행 차량 여행속도도 2007년 51.48km, 2008년 52.08km까지 상승했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운행속도가 늘어난 구간별로는 도심(내곽)의 경우 독립로 24.49km, 경원로 26.01km, 금남로 24.59km, 외곽의 경우 하남로 42.24km, 운원로 26.84km, 남문로 53.24km였으며 줄어든 구간은 제봉로 23.59km, 제1순환도로 30.52km, 북문로 25.57km, 빛고을로 75.44km, 제2순환도로 82.87km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또 찾아온 꽃샘추위

광주·전남 북 비온뒤 쌀쌀 ... 25일부터 풀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푹 떨어져 22일엔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꽃샘추위가 다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1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비(강수량 60~7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22일 광주가 8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이루다가 점차 기온이 올라 25일 낮부터 다소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예상 강수량 5mm 미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제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개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2011 제주 봄·여름 골프투어 사은행사!! 기간: 2011년 6월 30일까지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 수 있는 **골프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전문)

직장인을 위한 매주 일요일 출발 1박2일 골프

광주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45H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27홀	₩ 349,000원
부영호텔 30평 (4인1실)	36H
중문CC 18홀 + 부영CC 18홀	₩ 359,000원
관광 호텔 (2인1실)	36H
에버리스CC 18홀 + 아덴힐CC 18홀	₩ 389,000원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H
제피로스CC 18홀 + 세인트포CC 18홀	₩ 409,000원

골프 매니아를 위한 골프텔 상품

광주 왕복항공, 주중 4인 출발기준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H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 309,000원
사이프러스 골프텔 38평 (4인1실)	36H
더클래식CC 18홀 + 사이프러스CC 18홀	₩ 369,000원
라온 골프텔 37평(4인1실)	36H
스카이힐CC 18홀 + 라온CC 18홀	₩ 379,000원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H
아덴힐CC 18홀 + 에버리스CC 27홀	₩ 389,000원

고품격 1박2일 신규명문CC 18홀 * 2회

광주 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주중(월~목)	금/일	토
관광호텔	₩ 419,000	₩ 489,000	₩ 529,000
준특급호텔	₩ 419,000	₩ 499,000	₩ 539,000
라마다/그랜드호텔	₩ 469,000	₩ 569,000	₩ 599,000
롯데/신라호텔	₩ 509,000	₩ 589,000	₩ 619,000

★신규명문CC : 세인트포, 블랙스톤, 아덴힐, 핀코스, 테디밸리, 우리들, 엘리시안, 더클래식, 라온 등

★명문CC : 해비치, 사이프러스, 제피로스, 스카이힐, 에버리스, 부영, 중문, 라렌느, 오라, 한라산 등

*전상품 호텔&골프장 선택변경 가능. *2박3일 골프투어 가능& 관광패키지, 렌트자유여행 가능. *장흥 오렌지호 출발 1박2일 골프 투어 가능 36홀 ₩289,000~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단독수송차량, 숙박, 여행자보험
◆공통 불포함사항 : 전동카, 캐디팀, 식사, 기시팀 ★유가할증료